

Chapter 6 : 8-11 예수와 함께 산 우리

오늘은 로마서 6:8-11 을 공부해 보십시오.

로마서 6 :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 :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줄을 앎이로라

로마서 6 :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산다는말이 각 절마다 네 번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 : 8 ----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 :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

로마서 6 : 10 ----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 : 11 ---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말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사람이 사는 때는 언제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발생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번 죽지 여러번 죽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지 여러 번에 걸쳐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단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10 절과 11 절입니다.

로마서 6 :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죽는(고전 15:31)’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일평생 ‘산 자로 여기는 것(롬 6:11)’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 일이 언제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 순간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로 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에 영생을 주어 살게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고, 새사람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된 자는 끊임없이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동일화(Assimilation)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내 안에서 현재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죽은 자로 여기고 산자로 여김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과 동일화하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갖게 됩니다. 이 동일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경말씀이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단순 지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단순지적신앙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 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동의를 하지만, 그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단순 지적 신앙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노니” 한 구절을 천번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동의를 했어도, 자가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동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실존 상황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지적 신앙에 의한 동의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서 동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지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는 오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난 다음에 미래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성화 불가능론자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없는 완전성화(sinless perfect

sanctification)는 이 세상에 살 때 불가능하고 그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나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죄없는 완전성화(sinless perfect sanctification) 가능론자라고 생각하시진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없는 완전성화 가능론자도 불가능론자도 아닙니다. 완전 성화를 성령의 완전 통치의 구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완전 성화 불가능론자들은 우리의 몸, body, soma 가 죄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로마서 6 : 6 ---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서 찾습니다.

죄의 몸!

우리의 몸, body, soma 가 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죄가 나온다 !

우리의 몸, body, soma 가 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선한 것이고, 악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악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1. 몸은 선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선한 것이고, 악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악한 것이다.

로마서 1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Romans 1:24 (NKJV)

²⁴Therefore God also gave them up to uncleanness, in the lusts of their hearts, to dishonor their bodies (σῶμα) among themselves,

이 구절은 저희의 마음에 죄가 들어 오니 자기 몸을 정욕을 위해 나쁜 용도로 사용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 :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 Corinthians 3:16 (KJV)

¹⁶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고린도전서 3 :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몸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우리 몸은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거룩한 목적에, 또는 정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과 어떤 목적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 몸을 잘 보호하고 보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 :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²⁹ For no man ever yet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th and cherisheth it, even as the Lord the church:

이것이 우리가 몸의 성질을 지시해주는 가장 기본적 formula 입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몸의 의미를 알고 더 나아가서 죄의 몸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 몸이 예수님 자신으로 쓰인 경우

마태복음 26 : 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Matthew 26:26 (KJV)

²⁶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a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sigma\omega\mu\alpha$).

3. 몸이 우리들 인격 전체로 쓰인 경우

로마서 12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Romans 12:1 (KJV)

¹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4. 몸이 타락한 성품으로 쓰인 경우

고린도전서 9 :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1 Corinthians 9:27 (KJV)

²⁷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that by any means,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이 구절에서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타락한 성품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 :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 For if ye live after the flesh, ye shall die: but if ye through the Spirit do mortify the deeds of the body, ye shall live.

몸의 행실은 타락한 육적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타락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타락한 성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죄의 몸을 멸하려” 에 적용하면 “죄의 타락한 성품을 멸하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한 구절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하는 말은, 우리의 몸, **body, soma** 를 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 :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0] And if Christ be in you,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말은 be 동사로서 몸은 현재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 몸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에 영생을 주시므로 우리의 영은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5.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의미로서 몸이 쓰일 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12 :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 Corinthians 12:12 (KJV)

¹²For as the **body** is one, and hath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at one **body**, being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

σῶμα

고린도전서 12 :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 Corinthians 12:27 (KJV)

²⁷Now ye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 particular.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도 ‘죄의 몸’에서와 마찬가지로 몸을 body, σῶμα 로 사용합니다. 여기선 몸은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몸이란 사탄을 두목으로 하는 마귀, 귀신들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안에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마귀의 조직체, 죄의 몸을 더 이상 효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은 우리 몸이 죄성을 가졌다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죄의 몸은 유기적 관계 를 가진 죄의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머리로 하는 죄의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사용한 몸의 용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는 오해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성화론에서 누누히 강조했자만,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고, 새사람이 없으면 성화는 아주 멀고 먼 곳에 있습니다.

새사람은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 성령과 연합하는 것외엔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것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새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로마서 6 :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 Now if we be dea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다시 태어난 것이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의 실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째 사람이요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옛사람과 타락한 아담이 물려준 육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예로 살아가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이 없고,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타락한 성품인 육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옛사람과 육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육으로부터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은 죽고 마지막 아담 의 새로운 후손입니다.

둘째 사람의 예수님의 인격적 실존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성일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5 :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고소하던 적들
 앞이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 :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 :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새사람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